

##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

정 덕 호	김 영 미	이 준 기	박 선 옥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반 담임교사 13명, 영재담당교사 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담임교사들의 교사추천서와 영재담당교사들이 영재성에 관해 토론한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담임교사들은 수상, 학습태도, 발표, 성적을 영재를 정의하는데 사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과제집착력은 중시한 반면 동기를 간과하고 있었다. 영재담당교사들은 동기나 자기만족도는 중시 여기나 그 밖의 다른 정의적 요소들은 소홀히 생각하였다. 또 담임교사들은 부모나 교육여건을 중시한 반면 영재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반 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가 같은 학생에 대해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영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담임교사도 영재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일반담임교사, 영재담당교사, 영재성, 교사인식

### I. 서 론

정보화와 과학기술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확보가 국가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창의적인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과 더불어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과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시키고자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이정원 외, 2009). 최근에는 영재학교나 영재교육기관뿐 아니라 정규학교 내에서도 각 분야의 영재를 발굴 및 교육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재들에게 그들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에는 많은 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재교육은 영재의 판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이신동, 2002) 누가 영재이고, 영재를 어떻게 판별해 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이인호, 한기순, 2009).

1922년 Terman과 그 동료들이 Binet-Simon 지능검사를 미국판으로 표준화한 Stanford-Binet 지능검사를 개발한 이후 누가 영재인가에 대해 지능에서 찾으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였다(Gallagher & Courtright, 1986; Humphreys, 1986). Terman은 지능이 높은 사람을 영재로 정의하였고, Hollingworth도 영재아동을 일반 지능에 대한 상위 1%의 아동이라고 하였다(이신동 외, 2009). 무엇보다 미국 교육부에서도 영재를 정의할 때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중요한 특성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Marland, 1972). 하지만 이후 이러한 정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Renzulli의 세고리 모형, Sternberg의 암묵적 이론, Taylor의 다중재능 토렘기동모형, Gagne의 영재성과 재능의 차별화 모형 등 오늘날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해졌다.

또 아무리 영재성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린다 하더라도 영재의 행동특성은 단 한 번의 검사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관찰을 통해서 잘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Tannenbaum, 1983) 제대로 선발하지 못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aum, 1994). 그래서 결국엔 영재교육의 발전이 저해(Renzulli & Reis, 1986)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들로 영재를 선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종전의 시험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많은 학자들이 교사 관찰추천 방식이 다른 판별 방법들에 비해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Davis & Rimm, 1985; Fox, 1981; Gear, 1976), 교사 관찰추천제는 영재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학생선발 및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 모두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영재교육기관의 입학을 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영재선발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러한 선발 방법의 개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관찰추천 방식의 영재 선발에서 교사가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특성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때 보다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Tannenbaum, 1983). 그러나 교사들은 정확성, 계속적인 질문, 지적인 열성 등 인정받기 쉬운 학문적 행동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Tuttle & Becker, 1975), 관찰추천 방식의 영재선발은 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영재선발이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즉, 관찰추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 차원이나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에 대한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정현철, 2010), 그 개념이 추천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었을 때 관찰추천 방식의 영재선발 방식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영재의 정의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재능이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뛰어나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일선 교사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에서도 제시된 것이 없어 막연히 학업이

우수하거나 튀는 학생이 추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재로 추천되거나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위 학교에서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거나 모범생일 경우가 많아, 교사나 일반 사람들이 영재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어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Wasserman & Faust, 1994)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언어에 적용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은 언어가 인간의 기억 속에 층위적으로 군집한다는 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Collins & Quillian, 1972).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기계적 코딩을 통하여 핵심어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인용과 박한우(2007)는 언어네트워크 기법을 통한 내용분석 방법이 메시지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를 계량화(quantification), 도식화(mapping)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한 시각화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학습자가 특정 개념에 대해 인출해 놓은 언어정보는 그것이 음성언어이든 문자언어이든 시간 간에 자신이 연결 네트워크(association network)를 통해 인지구조 내에 구조화시켜 놓은 의미에 대한 표상이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과거에는 인식분석을 위해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거나(박선자 외, 2009)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박지은, 이봉우, 2012).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문장의 의미를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취약한 반면,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중요한 개념과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 강도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혜준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선발과정에서 영재를 추천한 일반담임교사들과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살펴보고, 그들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영재 선발을 위한 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재를 추천한 일반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재를 추천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일반담임교사들과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영재 일반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영재의 일반적 정의와 특성, 영재의 판별 원칙 및 도구, 교사의 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선발에 대해서 문헌조사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C대학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기 위해 일반담임교사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추천서 13부를 언어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하고 있는 영재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2011년 11월 C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재교육전공인 영재담당교사 8명이 영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 전자 자료를 가지고 내용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를 위해 언어적 표현과 표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했다.

## 2. 연구 대상

일반 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C대학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용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담임교사들 중에서 13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영재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서 영재들을 위해 강의를 경험한 적도 없는 학급담임교사들로 구성되었다. 또, 이들 중에서 초등교사는 7명, 중등교사는 6명이고, 남교사가 4명, 여교사가 9명이었다.

그리고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영재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8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영재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62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들로서 현재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서 영재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담당교사들은 모두 여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초등교사가 5명, 중등교사가 3명이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3~4학기 대학원생들로서 영재교육학개론을 비롯한 영재교육관련 강의를 수강하였다(<표 1>).

<표 1> 교사들의 인식조사에 참여한 교사

구분	학교급별(명)		성별(명)		직무연수(명)	
	초등	중등	남	여	이수	미이수
일반담임교사	7	6	4	9	0	13
영재담당교사	5	3	0	8	8	0

##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C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일반담임교사들의 교사추천서와 영재담당교사들이 영재성에 관해 토론한 전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C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제출된 추천서 중에서 일반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400자 이상의 추천서 13부를 추출하였다.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되 학생들의 영재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례를 들어 400자 이상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교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담임교사가 작성한 추천서는 이메일을 통해 C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재담당교사 8명을 대상으로 약 120분 정도 토론을 실시하였다. 저조한 참여를 보이는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지목하여 발표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추가 자료의 도출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토론과정을 녹음하여 전자하였고, 이 전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 4. 자료 처리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어 기반 대용량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교사들이 자유롭게 기입한 추천서의 조사와 서술어를 삭제하여 명사만 남기고, 의미를 갖지 않는 모든 단어들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 출현 빈도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사회 네트워크 전문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중심화지수(centralization)을 도출해 냈다. 마찬가지로 영재담당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재담당교사들이 영재성에 대해 토의한 것을 전사하여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Krkwic과 Ucinet 6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어 출현 빈도,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중심화지수(centralization)을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구조와 개별된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Krkwic과 Ucinet 6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또 하나의 통합 언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영재 일반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재성과 영재담당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일반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Krkwic 프로그램을 사용해 C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제출된 일반담임교사들의 추천서를 분석해 본 결과, 66개의 단어로 간추릴 수 있었다. 이 단어들은 밀도 0.430, 평균 아이겐벡터 중심성 0.798, 중심화지수 0.5748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담임교사들이 영재성에 관련해서 언급한 66개의 단어 중 빈도수가 상위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열성’이 2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이 20회, ‘수상’이 19회, ‘성적’이 16회, ‘문제해결’이 15회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일반담임교사들은 문제해결력, 창의성, 확산적 사고, 민감성 등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요소들을 영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반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중 가장 큰 중심성을 보이는 요소는 ‘과학’(중심성 0.430)이었으며 ‘문제’(중심성 0.385), ‘문제해결’(중심성 0.32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일반담임교사들은 영재성에서 ‘과학’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력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상(빈도수 16, 중심성 0.216), 성적(빈도수 16, 중심성 0.216)이라는 단어들이 높은 빈도수와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일반담임교사들에게 영재라고 인식되어 영재교육기관에 추천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담임교사들이 Sternberg와 Lubart(1993)가 제시한 학업적 영재와 창의적 영재 중 학업적 영재에 치우쳐 영재성을 인

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교사추천서에서 76.9%의 일반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전과목에서 우수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일반담임교사들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영재로서 추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례 1>). 즉, 일반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은 특정 영역의 학습 능력보다는 모든 영역의 학습 성취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Renzulli(1986)가 그의 세고리 모형에서 보통 이상의 지적 능력을 어려운 내용을 쉽게 빨리 배우고 수준 높은 책을 즐겨 보고 많이 읽으며, 수준 높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이해가 빠르고 기억을 잘하며 아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제시하였고,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것과 비교할 때 일반담임교사들은 학습능력과 관련된 지적능력과 산출물과 관련된 창의성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영재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례 1>

- 강\*\*학생의 담임: 위 학생은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1학기 교과 성적이 학급 상위 2%안에 들며...
- 공\*\*학생의 담임: 위 학생은 초등 교육과정 각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 김\*\*학생의 담임: 위 학생은 평소 바른 학습 태도와 높은 이해력으로 전 교과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며...

또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열성’이라는 단어는 빈도뿐 아니라 중심성도 0.242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일반 담임교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영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제집착력, 집중, 능동이란 요소들과 함께 Renzulli의 과제집착력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요즘 국내에서 영재교육의 한 분야로 각광받는 리더십도 높은 빈도(13번)를 보이고 있으나 중심성은 매우 낮은편(0.071)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학생이 교내의 임원(빈도수 9, 중심성 0.025)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사례2>).

<사례 2>

- 강\*\*학생의 담임: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학급을 이끌고 봉사하였으며...
- 이\*\*학생의 담임: ...2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봉사 및 리더십도 우수하여...

또한 ‘학습태도’(빈도수 6, 중심성 0.133), ‘발표’(빈도수 5, 중심성 0.089), ‘참여’(빈도수 5, 중심성 0.071) 등 수업이나 학급활동에서 가시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거나 활동을 보여주는 것에 민감한 반면 ‘잠재력’(빈도수 4, 중심성 0.031), ‘창의성’(빈도수 7, 중심성 0.160)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능력과 같은 요소는 영재와 지적 능력 중 언어능력의 발달과 연관되는 것이지만(윤여홍, 2003) 내성적인 영재들 일 경우 표현활동이 서툴러서 영재 추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제시하여 영재교육에서 잠재력의 계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담임교사들은 영재성의 요소로서 잠재력을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어 잠재력이 풍부한 영재들이나 미성취 영재들이 영재교육에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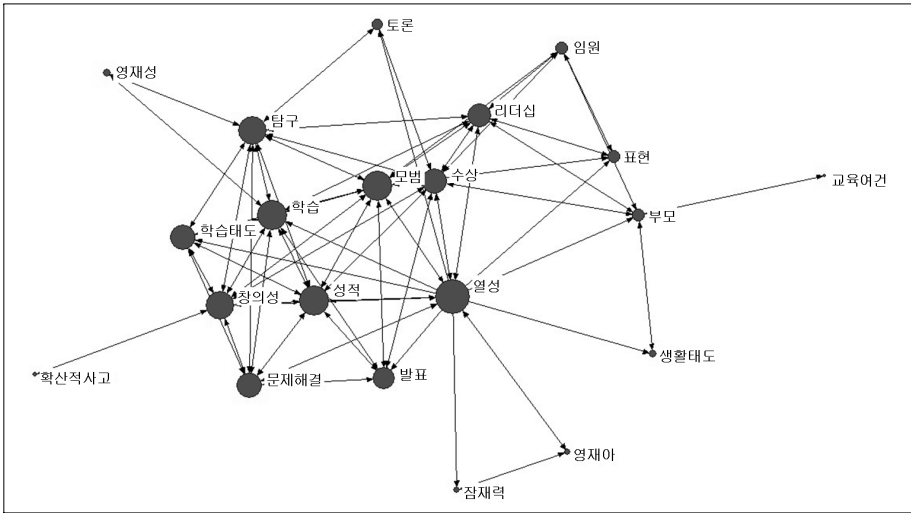
<표 2> 일반 담임교사의 추천서에 등장한 언어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열성	28	0.242	부모	3	0.019
과학	20	0.430	분석	3	0.087
수상	19	0.209	연구	3	0.069
성적	16	0.216	적용	3	0.088
문제해결	15	0.327	정보	3	0.033
리더십	13	0.071	지식	3	0.099
실험	13	0.222	진로	3	0.012
탐구	13	0.253	과제집착력	2	0.018
모범	12	0.100	기본개념	2	0.043
사고력	9	0.171	능동	2	0.049
소질	9	0.125	배려	2	0.005
임원	9	0.025	생활태도	2	0.005
봉사	7	0.032	신망	2	0.003
이해	7	0.169	의사결정	2	0.002
창의성	7	0.160	인간관계	2	0.018
독서	6	0.098	인지	2	0.027
문제	6	0.385	지능	2	0.004
수학	6	0.119	질문	2	0.037
학습태도	6	0.133	토론	2	0.023
호기심	6	0.111	표현	2	0.010
발표	5	0.089	합리	2	0.002
참여	5	0.071	협동	2	0.005
책임감	5	0.014	효율	2	0.020
흥미	5	0.117	공동체의식	1	0.007
계획	4	0.065	교육여건	1	0.001
관심	4	0.022	긍정	1	0.005
인성	4	0.016	목표	1	0.005
잠재력	4	0.031	민감성	1	0.015
집중	4	0.118	봉사정신	1	0.001
학습	4	0.174	영재성	1	0.006
관찰	3	0.047	영재아	1	0.004
노력	3	0.051	지식체계	1	0.048
논리	3	0.067	확산적사고	1	0.015

[그림 1]은 일반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열성’이란 단어는 영재성에 대해 서술하는 데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범’,

‘수상’, ‘학습태도’, ‘성적’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언급된 점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범학생과 영재성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재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임원, 생활태도, 학습태도 등이 언급된 점 역시 일반 담임교사들이 모범적인 학생을 영재라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육여건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재아’라는 단어는 ‘잠재력’, ‘열성’ 두 단어와만 연결되어 있으며 ‘영재성’이라는 단어 역시 ‘탐구’, ‘학습’이라는 단어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영재성을 염두에 두고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학생들을 영재로 인식하여 추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일반 담임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 2.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

영재담당교사들이 보는 영재성을 Krkwic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 33개의 단어로 간추릴 수 있었다. 이 단어들은 밀도 0.430, 평균 아이겐벡터 중심성 0.1264, 중심화지수 0.6188를 나타내고 있다(<표 3>).

영재담당교사는 영재성에 대해 서술할 때 ‘영재아’(빈도 21), ‘영재성’(빈도 17)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선천’(중심성 0.385)적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nzulli(1991)는 선천적인 능력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유전적으로 영재성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영재담당교사들 역시 선천적인 능력을 계발해야



영재성이 제대로 발현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3>).

<사례 3>

\*\*\*: ...일단은 타고나서 그것을 계발을 하고, 즐겁게 힘을 쏟을 수 있으면 그 영재성이 꽃 피우는 것이라고...

영재담임교사들은 이 외에도 ‘목표’(빈도 11, 중심성 0.292), ‘소질’(빈도 10, 중심성 0.350), ‘지능’(빈도 7, 중심성 0.311)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질’은 ‘선천’과 더불어 선천적인 요소를 크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정의적 영역에서 영재담임교사들은 동기(중심성 0.111)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영재의 성공에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송인섭(2001)의 주장과도 일치했다(<사례4>).

<사례 4>

\*\*\*: 그런 아이의 삶을 보면 꼭 공부라 캠프를 가거나 다른 노는 것까지도 동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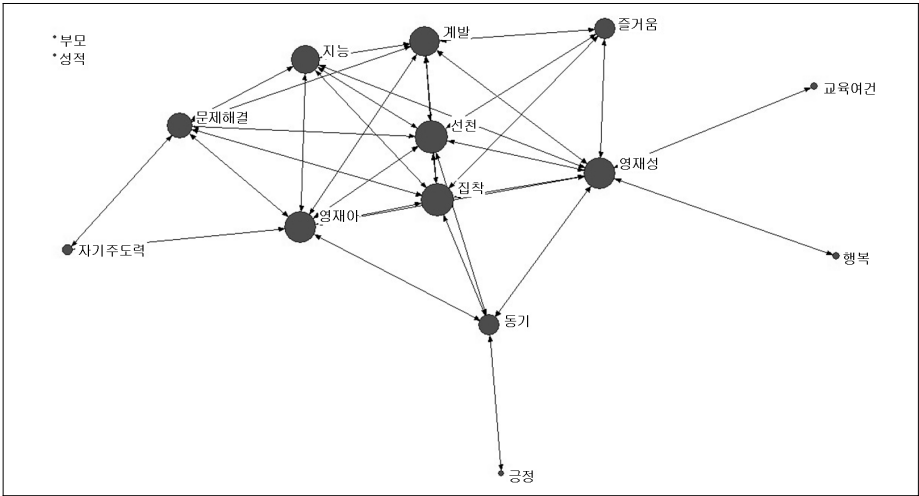
영재담임교사들은 즐거움(빈도수 4, 중심성 0.084), 행복(빈도수 2, 중심성 0.031) 등 영재가 자신의 자기만족도도 영재의 특성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영재담임교사의 영재성 토론에 등장한 언어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영재아	21	0.473	섬세함	2	0.048
영재성	17	0.215	연구	2	0.014
선천	16	0.385	자기주도력	2	0.047
목표	11	0.292	집중	2	0.058
소질	10	0.350	집착	2	0.201
공부	8	0.131	창의성	2	0.093
지능	7	0.311	행복	2	0.031
자기이해	5	0.196	과학	1	0.042
동기	4	0.111	관심	1	0.042
즐거움	4	0.084	교육여건	1	0.008
집착력	4	0.153	긍정	1	0.013
계발	3	0.149	끈기	1	0.018
노력	3	0.141	부모	1	0.005
문제해결	3	0.121	습득력	1	0.022
분석	3	0.051	이해	1	0.205
성취	3	0.069	잠재력	1	0.009
발현	2	0.084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림 2]를 보면 거의 모든 요소와 ‘영재아’나 ‘영재성’이 연결되어있다. 또한 ‘집착’, ‘계발’, ‘지능’, ‘문제해결’ 등을 영재성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담임교사들의 추천서하고는 다르게 ‘성적’이나 ‘모범’ 등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으며, ‘부모’요소는 ‘공부’와, ‘교육여건’은 ‘영재성’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영재담당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재성은 ‘부모’나 ‘교육여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 3.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

영재담당교사들과 일반 담임교사들이 보는 영재성 인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일반 담임교사들의 추천서에 사용된 단어들과 영재담당교사들이 영재성에 대해 토론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가지는 공유된 특성과 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을 이용하여 통합된 언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그림 3]).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가 영재성에 대해 서술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지능, 잠재력, 집중, 목표, 문제해결, 창의성’ 등 18단어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지능과 집중력, 문제해결력 등을 영재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둘 다 ‘교육여건’이나 ‘부모’를 언급하였으나 다음의 사례를 보면 두 요소에 관한 입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례 5>). 일반담임교사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인지능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재담당교사는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고는 있지만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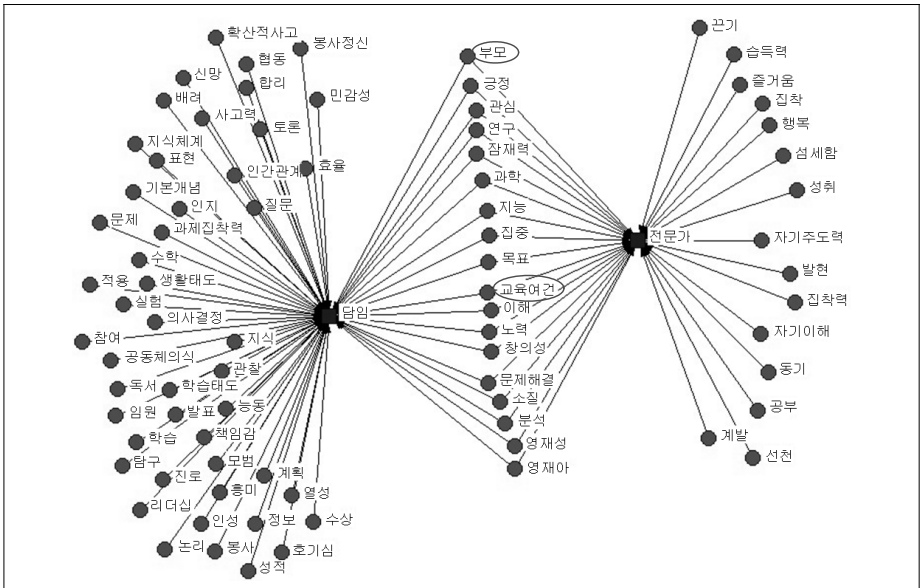
<사례 5>

일반담임교사: ...부모의 남다른 과학사랑과 독서활동이 자녀의 인지능력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정으로서...

영재담당교사: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꼭 영재 같다는 생각이 꼭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 시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일반담임교사들은 영재담당교사들과는 달리 수상, 학습태도, 발표, 성적을 영재를 정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Tuttle과 Becker(1975)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교사들은 정확성, 계속적인 질문, 지적인 열성 등의 인정받기 쉬운 학문적 행동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재의 중요한 정의적 특성인 동기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영재담당교사들은 ‘동기’를 영재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정의적 요소들(리더십, 봉사, 인성 등)은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일반 담임교사들과 영재담당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통합 언어 네트워크

IV. 결 론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를 가르칠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지능 검사에 의해 쉽게 식별되지 않는 영재 특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출처가 되어 주고(Renzulli & Delcourt, 1986),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영재 교육대상자 선발 시스템에서 교사의 학생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Siegle & Powell, 2004). 우리나라도 지필 평가 위주의 영재 선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영재 교사의 관찰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인호와 한기순(2009)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 효용성을 알아본 결과 70~80%의 판별 적중률이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관찰추천제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교사와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성 정의의 차이점을 통해 영재 선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사와 영재담당교사가 정의하는 영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영재담당교사의 토론을 전사한 자료를 언어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 담임교사는 지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적·정의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적이나 수상실적, 인성 등 일반 담임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학생들을 영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 담임교사들은 부모나 교육여건 등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영재담당교사들은 영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므로 그 재능을 개발해 준다고 하였고, 정의적 영역 중 동기나 자기만족도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다른 요소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영재선발방식인 ‘교사관찰추천제’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 모두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담임교사와 영재담당교사간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추천방식의 영재 선발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특성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때 보다 신뢰성이 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Tannenbaum, 1983)는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담임교사가 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영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담임교사를 위한 영재교육관련 연수가 더욱 많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찰추천시스템에서 영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된 영재담당교사는 그 수와 경력이 협소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경력과 많은 수의 영재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남인용, 박한우 (2007). 대권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 정당학회보**, 6(1), 79-107.
- 박선자, 최경희, 이현주 (2009). 교육청 영재교육원 과학 담당 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회**, 9(2), 119-137.
- 박지은, 이봉우 (2012). 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16(2), 587-601.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학지사.
- 이인호, 한기순 (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이혜준, 이동일, 이주현 (2010).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교육연구*, 14(2), 105-128.
- 정현철 (2010). 영재교육 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안. **제1회 영재교육 열린포럼 자료집**, 1-6.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교사추천선발시스템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aum, S. M. (1994). Meeting the need of gifted/learning disabled students.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3(5), 6-16.
- Collins, A. M., & Loftus, E. F., (1975).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6), 407-428.
- Davis, G. A., & Rimm, S. A. (1985).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NJ: Prentice-Hall.
- Fox, L. H. (1981). Identification of the academically gifted. *American Psychologist*, 36(10), 1103-1111.
- Gear, G. G. (1976). Accuracy of teacher judgment in identifying intellectually gited 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Gifted children quarterly*, 20(4), 478-490.
- Marland, S. P., Jr.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 Volume I*: Report to the Congress for the United States by the U. 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enzulli, J. S. (1986). The Three 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son (Eds.), *conception of Giftedness* (pp. 246-279).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zulli, J. S., & Delcourt, M. A. M. (1986). The legacy and logic of research o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persons. *Gifted Child Quarterly*, 30(1), 20-23.
- Renzulli, J. S., & Reis, S. M. (1986). The enrichment triad/revolving door model: A school wid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oductivity. In J. S. Renzulli (Ed). *System And Model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pp. 216-266). TX: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 Reis, S. M. (1991).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roductivity.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2nd ed., pp. 111-141). Needham Heights, MA:Allun and Bacon.

- Siegle, D., & Powell, T. (2004). Exploring teacher biases when nominating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48(1), 21-29.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3). Creative giftedness: A Multivariate investment approach. *Gifted Child Quarterly*, 37(1), 7-15.
- Te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Y: Macmillan Pub, Co.
- Tuttle, F. B., & Becker, L. A. (1975). *Characteristics and identification of G/T students*. Washington, D.C.: NEA.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s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Giftedness between Homeroom Teachers and Teachers of The Gifted

**Duk-Ho Ch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ng-Mi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un-Ki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eon-Ok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giftedness between homeroom teachers and teachers of the gift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3 homeroom teachers and 8 teachers of gifted students. It was analyzed using recommendation letters, and shorthand notes about giftednes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most homeroom teachers used awards, learning attitude, presentation of self and school achievements for defined giftedness and preferred an exemplary student with task commitment but often overlooked motivation. The teachers of the gifted preferred motivation and self-satisfaction but not other social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Also homeroom teachers thought that education condition is important, while the teachers of the gifted believed it was not an all important element. These differences will hurt the credibility in the selection or gifted students because homeroom teachers and teachers of the gifted use different words and expressions in their assessments of the same students. Therefore, I believe more needs to be done to encourage homeroom teachers to better understand gifted children through training programs.

**Key Words:** Homeroom Teachers, Teachers of the gifted, Perception on giftedness

1차 원고접수: 2013년 1월 24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4월 2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4월 15일